✓ I사 대통령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; >



뉴스홈 | 최신기사

-올림픽-<핸드볼> 남자대표, 러시아에 패..최소 3위

송고시간 | 2008-08-18 16:25











박성민 기자



(베이징=연합뉴스) 특별취재단 =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이 러시아에 패했지만 최소한 조 3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됐다.

김태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핸드 볼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러시아에 22-29, 7점 차로 졌다.

지난 10일 독일과 첫 판에서 패한 뒤 덴마크, 아이슬란드, 이집트를 연달아 격파한 한국은 이로써 3승2패로 승점 6이 돼 최소한 조 3위로 8강전에 오르게 됐다. 러시아는 2승1무2패 승점 5가 됐다.



앞선 경기에서 이집트와 32-32로 비긴 아이슬란드는 2승2무1패 승점 6으로 한국과 같아졌다.

이 때문에 독일과 덴마크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갈리게 된다. 승점 4인 덴마크가 이기면 승점 6인 팀은 한국, 아이슬란 드, 덴마크 3팀이 되지만 한국이 2팀을 모두 이겼기 때문에 승자 승 우선 원칙에 따라 조 1위가 된다.

승점 5인 독일이 이길 경우 독일이 1위, 한국은 2위가 된다. 그러 나 양팀이 비길 경우 한국은 독일, 아이슬란드와 함께 3팀이 물 리고 물린 상황이 돼 3팀 간 골득실을 따져야 하는데 독일에 4점 차로 진 한국은 3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.

초반부터 한국은 러시아의 높은 벽에 밀렸다. 한국의 최장신인 윤경신(203cm)이 평범해 보일 정도로 키 200cm가 넘는





핫뉴스 →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다섯식구 평균키 203cm...美 가족 '최장신' 기네스북 등재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범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선수가 3명이나 됐다.

한국은 높은 수비벽을 뚫지 못해 고전했고 간간이 날리는 슈팅도 골키퍼에 막혔다. 전반 17분에는 6-12, 더블 스코어까 지 점수 차이가 났다.

12-17로 5점 뒤진 채 후반을 맞은 한국은 윤경신의 외곽포와 수문장 한경태의 선방, 정수영의 속공이 연속으로 터지며 4분 만에 15-18, 3점 차로 따라붙었다.

후반 6분께 러시아 피봇 알렉산더 체르노이바노프와 라이트백 알렉세이 카마닌이 한거번에 2분 퇴장을 당한 사이 한국 은 윤경신이 2골을 연달아 네트에 꽂으며 17-19, 2골 차까지 따라붙었다.

하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바뀌지 않았고 러시아의 파상 공세에 계속 시달린 한국은 후반 24분 19-28, 9점 차까지 뒤져 패배가 결정됐다.

min76@yna.co.kr



<올림픽>한국`10-10' 눈앞..아시아 2위 유력

<올림픽> 여자핸드볼, 만리장성 넘어 4강 간다

<올림픽> 中 짝퉁시장' 30년來 최대 호황

<올림픽> "커밍아웃 동성애자 선수는 10명"

'무한도전'팀 핸드볼 중계에 시청률 수직상승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08/18 16:25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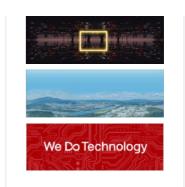
▶ 02:22

[영상]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나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 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

결국 우크라에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•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''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''

● 뉴스

尹당선인 "경제 복합위기 징후 뚜렷...물가상승 장기화 대비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…"공동정 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⊕ 67 안 맞아"(종합)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_ __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동 □ 56 재개 예열?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_{∰ 41} 힐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

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광고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/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 뉴스+

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대표이사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